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과 아동의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Day Care Quality, Child-care Experience and Family Characteristics

양 연 숙**

Yang, Yeon Suk

조 복 희***

Cho, Bok 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development and day care quality, child-care experience and family characteristics, and (2) to investigate the explainability of those related variables for social development.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52 4-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from 32 day care centers in Seoul. Harms & Clifford's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was used to measure the quality of day car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Day care quality, child-care experience and family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ocial development. (2) Child's gender, months of age,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the length of child-care experience, overall quality of day care, and group size significantly predicted social development. 33% of the variance of social development was explained by these variables.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se variables to the prediction of social development was about the same.

I. 서 론

현대사회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증가와 함께 기혼여성의 취업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는 여성취업이 저소득층의 미숙련, 저임금 노동과 소수의 전문직에 머물렀으나, 최근들어 자녀수의 감소,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생활수준 향상 욕구, 생계비 급증 등으로 인해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 본 연구는 1995년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의 36.9%에서 1988년에는 45%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취업자 중에서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1988년에는 45.8% 정도였던 것이 1993년에는 75.2%까지 증가하고 있다(경제기획원, 1970, 1988, 1993).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달라짐에 따라 더 이상 어머니 혼자만이 유아의 양육을 전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자녀들은 어머니가 아닌 대리 양육자에게 맡겨져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최근들어 탁아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이영, 1990).

초기의 탁아 연구들은 탁아경험의 유무에 따라 아동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해왔다.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탁아경험은 아동의 신체적, 지적, 사회·정서 발달에 해가 되지 않으며(Andersson, 1992; Belsky, 1988; Hegland & Rix, 1990),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아동들은 양질의 탁아기관에서 양육되는 경우, 위험 부담이 큰 환경에서 자란 유아기 아동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지능점수의 저하현상을 막아주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Burchinal, Lee, & Ramey, 1989; Clarke-Stewart, 1982).

따라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탁아경험의 유무보다는 아동발달에 적절한 탁아의 질적 측면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데 집중되고 있다. 탁아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의 경향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탁아의 전반적인 질을 측정된 후, 전반적인 질과 아동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연구자들은 탁아기관의 질이 높을수록 아동발달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Clarke-Stewart, 1982; Howes &

Olenick, 1986).

탁아의 질에 관한 두 번째 측면의 연구는 탁아의 질을 나타내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크기, 교사의 훈련, 교육 및 경험 정도, 교사의 안정성, 물리적 환경, 교사-아동 상호작용 등과 같은 각각의 지표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 중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크기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교사 대 아동비율과 집단크기가 작을수록 아동발달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Howes & Rubenstein, 1985; Belsky, 1984; Feild, 1991).

탁아에 관련된 세 번째 연구경향은 탁아와 가정환경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아동발달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높은 질의 탁아기관에 다니는 아동의 가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낮은 질의 탁아기관에 다니는 아동의 가족이 좀더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elsky, 1990; Howes, 1990; Howes & Stewart, 1987). 또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탁아기관의 질적요인과 가족특성 중 어떤 변인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한 결과 가족과 탁아 환경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이 둘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했을 때 아동발달을 더 잘 예언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Andersson, 1992; Clarke-Stewart, 1984; Howes, 1988; Phillips, Scarr, & McCartney, 1987).

탁아와 가정환경의 영향 외에 탁아시작시기, 탁아를 경험한 기간, 주당 이용시간, 탁아안정성 또한 아동발달과 관련된다. 최근에 행해지는 연구들은 생후 1년 이내에 시작된 종일제 탁아양육이 그 후 또래와 성인과의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elsky (1988)는 생후 1년 이내에 주 20시간 이상의 타

인양육을 받는 것은 유아기에 회피-불안정한 애착의 발달과 확률전기에 공격성, 비동조성, 회피의 증가를 가져오는 위험요소라고 결론지었다.

이와는 반대로 Phillips, McCartney, Scarr와 Howes(1987)는 보고된 유아기 탁아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내의 긴장, 탁아시작시기, 탁아기관의 질 및 안정성 등의 변인들과 혼재되어 있어 탁아의 순수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생의 초기의 탁아경험보다는 탁아의 종류 및 질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아동과 관련되는 여러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그 환경들간의 상호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발달의 과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탁아에 대한 요구조사 및 탁아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벗어나 탁아기관의 전반적인 질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신혜원, 1992; 조선영, 1992)나 탁아기관의 질을 대표하는 질적 요인을 측정된 후 이에 따른 아동발달을 살펴본 연구(김양희, 1988; 전선옥, 1990; 황현주, 1991; 민송이, 1994) 그리고 가정과 탁아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것을 비교한 연구(김향화, 1993; 신은주, 1993; 이영·신은주·나중혜, 1992; 이은화·이상금·이정환·이경우·이기숙, 1993)는 있으나 양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탁아시설에서의 경험과 가정에서의 경험에 따라 유아가 어떻게 영향 받는지를 파악하는 생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영·유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인 가정과 탁아의 두 장면에서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과 사회성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이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가정과 아동발달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으로서의 탁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가족특성과 아동의 사회성발달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가족특성이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탁아기관 32개소와 이 기관에 다니는 만 4세 아동 252명과 이들의 부모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의 탁아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표집하기 위하여, 표집이 어렵다고 사료되는 4개구를 제외한 18개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립 탁아기관에 전화로 협조를 구한 뒤 각 구마다 2곳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기관의 수가 적고 표집에 응하지 않은 4개구에서는 1개 기관만 표집하여 총 32개기관이 선정되었다.

연구대상 아동은 만 4세 아동으로서 해당기관에서의 탁아경험이 6개월 이상인 아동으로 제한하였다. 만 4세 아동을 선정한 이유는, 만 4세가 되면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지닌 3세 아동에 비해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성인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기관에서의 탁아경험이 6개월 이상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표집한 것은, 탁아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최소한 3개월(Clarke - Stewart, 1984)에서 6개월(McCartney, 1987)의 경험이 있는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근거한 것이다.

연구대상 아동은 남아가 144명(57.1%), 여아 108명(42.9%)이었으며, 월령 분포를 보면 48개월에서 53개월 내에 있는 아동이 132명(52.4%), 54개월에서 59개월 사이의 아동이 120명(47.6%)으로 비교적 고르게 표집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가족은 대체로 핵가족(77.6%)이었고,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에서 190만원 사이로(46.9%), 고졸 이상의 학력에(아버지 92.2%, 어머니 89.8%) 다양한 직업을 소지한 30대 부부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탁아기관의 질을 평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 그리고 사회성발달을 묻는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1) 탁아기관의 질 평정 척도

탁아기관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평정하기 위하여 Harms & Clifford(1980)의 유아교육 환경 평정척도(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ECERS)를 사용하였다. 유아교육 환경 평정척도는 영·유아의 양육 및 교육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평가를 위해 개발된 척도로서 생활습관지도도를 위한 환경, 실내비품 및 작품의 진열과 배치, 언어·개념학습 활동을 위한 환경, 대·소근육운동 활동을 위한 환경, 창의성 활동을 위한 환경, 사회성 활동을 위한 환경, 교사·부모 환경 등 7개 하위 영역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임재택(1983)에 의해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에서 특수아에 관련된 문항 1개를 제외시켜 7개의 하위 영역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평점은 7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부적절, 기본적, 적절, 최상의 수준에 대한 준거가 제

시되어 있는 기술평정척도(descriptive rating scale)이다. 본 연구에서 2회의 예비조사를 걸쳐 탁아기관의 질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를 Irwin과 Bushnell(1980)공식으로 산출한 결과 하위영역별로 .83에서 .91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88로 나타났다.

2) 가족특성 및 탁아경험

가족특성 및 탁아경험에 대한 질문지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부모역할갈등,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탁아경험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천희영(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성과 통제성의 두 차원으로 총 23문항이다.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6점을 주는 Likert식 6점척도로, 각 차원별로 그 차원의 행동을 많이 할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천희영(1993)의 연구에서 애정성과 통제성의 구성차원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80과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79와 .72로 나타났다.

부모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현은강·조복희(1994)에 의해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진 부모역할만족도 척도의 하위영역인 부모역할갈등에 해당하는 11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주는 Likert식 4점척도이다. 현은강·조복희(1994)가 보고한 부모역할갈등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Howes와 Stewart(1987)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안정성, 지지, 접촉에 해당하는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안정성은 자녀출산 이후 이사수와 거주기간을, 지지는 아이를 돌봐줄 친척과 친구에게 의지하는 정도를, 접촉은 친구

및 친척과의 접촉정도이다.

탁아경험은 탁아시작시기, 탁아경험기간, 탁아 이용시간, 탁아안정성으로서 탁아시작시기는 어머니외에 타인에게서 낮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받기 시작한 시기로 측정하였고, 탁아경험기간은 탁아를 경험한 전체 기간을 개월로, 탁아이용시간은 하루 중 탁아를 이용하는 시간을 분으로 측정하였다. 탁아안정성은 아동이 경험한 탁아 변경횟수로 측정하였다.

3) 아동의 사회성발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성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Pease, Clark과 Crase(1979)의 ISCS (Iowa Social Competency Scales: Preschool Form) 어머니용 질문지를 교사용으로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ISCS 학령전 아동용은 총 34개 문항으로서, 5개의 요인 즉, 사회적 활동성 (social activactor), 과민성(hypersensitive), 안정성(ressurnace), 비협력성(uncooperative), 협력성(cooperative)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어머니용 질문지에서 부적절한 문항은 제외시키고 외국문화에 맞게 제작된 ISCS가 우리나라의 아동의 사회성발달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총 30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활동성(12문항), 협력성(9문항), 과민성(5문항), 불안정성(4문항)으로 사회성발달 내용이 구성되었다.

사회성발달의 하위요인에 대한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각 요인 별로 그 요인의 행동을 많이 할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요인 분석 결과 얻어진 측정도구의 하

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78 ~ .9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측정도구의 적합성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2회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 환경 평정척도의 지침의 세부사항 중 우리 나라 실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고, 탁아담당자 및 부모용 설문지의 문항도 일부 보완되었다. 또한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본 조사는 95년 3월 21일 부터 4월 22일까지 5주간에 걸쳐 각 탁아기관을 오전 혹은 오후에 1회씩 총 2회 직접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조사하였다. 1·2차 관찰은 동원(하교)에서부터 자유놀이, 집단활동, 식사 혹은 간식활동을 모두 관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였으며, 2차 관찰을 마친 후 각 시설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였다. 2회의 방문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탁아담당자에게 질문을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평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4~5개 시설의 평정을 마친 후에 이들을 비교, 재검토하였다.

III. 결과해석 및 논의

1. 변인별 특성

1) 탁아기관의 질적 특성

먼저 연구대상 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연구대상 탁아기관은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체원아수는 평균 102(SD=34)명이고 전체 학급수는 6학급(SD=2.5) 정도의 규모이었다. 아동수는 20명이하가 46.9% 였으며, 교

사 대 아동비율은 1:20이하(68.9%)였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1명(71.9%)의 20대(81.2%) 주교사에 의해 보육되고 있었다. 학습의 실내면적은 대부분 20평이하(84.3%)였으며, 아동일인당 활용면적은 0.8평미만이 6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탁아기관은 탁아에 관한 법령 및 연구에서 쟁점이 되어온 탁아담당자의 학력 및 자격에 있어 기준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가 아동의 사회적·물리적 세계와의 접촉을 증대한다는 기본 가정하에 탁아기관의 질적 요인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 온 교사 대 아동비율이 1:20이 넘는 곳이 31.3%로 나타났으며 집단크기도 20명 이상인 곳이 53.1%로 나타나 집단의 크기가 크며 이를 돌보는 교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탁아시설의 공간크기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7조)에 의하면, 3세 이상 아동의 경우, 실당 전용면적 80㎡(24평)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일인당 2.64㎡(0.8평) 이상으로 크기를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대상 탁아기관의 실내면적과 아동일인당 활용면적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탁아기관의 질적 특성을 평정한 결과, 탁아기관의 전반적인 질 평정의 평균점수는 4.00으로 유아교육 환경 평정척도(ECERS)에 의하면 '기본적'(3점)과 '적절'(5점)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별로 3.12에서 4.95로 평정되어 시설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기관이 국가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최소한의 환경은 구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정척도의 기준에서 볼 때, 연구대상 탁아기관의 질은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최적의 환경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질적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과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탁아경험 특성

탁아시작시기에 있어 생후 36개월 이후에 탁아를 시작한 아동이 38.5%, 생후 12개월 이전에 탁아를 시작한 아동이 31.3%로 나타났으며, 탁아경험기간은 1년, 2년, 3년인 집단이 각각 36.1%, 33.7%, 30.2%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평균탁아경험기간은 26개월(SD=15)이었다. 탁아이용시간은 6-8시간 사이가 92명(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탁아안정성은 탁아변경횟수로, 탁아유형을 변경하지 않은 아동이 132명(52.4%)으로 가장 많았다. 빈도와 표준편차에서 제시되듯, 아동의 탁아경험은 다양한 월령에서 이루어지며 개인간 차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생후 12개월 이전에 탁아를 경험한 아동이 31.3%로서 어머니의 취업이 돌 이전에 이루어지며 이것이 점차 보편화 추세라는 점이다. 이러한 여성의 경우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보다는 다니던 직장에 복직하는 경우로 사료되며, 보다 어린 영아와 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탁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3) 가족특성

양육태도, 부모역할갈등, 사회적 지지로 구성된 가족특성을 살펴보면,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총점 6에 평균점수 4.84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양육태도는 3.76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구대상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적이면서도 중간 정도의 통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부모역할갈등은 총점 4에 평균점수 1.89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 아동이 동일계 탁아기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어려움이나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총점 5에 평균점수 2.69로 중간정도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성 발달

연구대상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은 총점 5에 3.27로 교사에 의해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사회성발달의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협력성이 3.55, 사회적 활동성이 3.09, 불안정성이 2.83, 과민성이 2.74로, 협력성과 사회적 활동성이 높고, 불안정성과 과민성이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자를 탁아기관을 6개월 이상 다닌 아동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탁아 경험기간이 평균 26개월(SD=15)임을 고려할 때, 탁아를 경험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 부정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2.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과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1) 탁아기관의 질과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탁아기관의 질과 사회성발달간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표 1> 탁아기관의 전반적인 질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간의 상관계수 (N=252)

변 인	사회적 활동성	협력성	과민성	불안정성
생활습관지도를 위한 환경	.16**	.13	-.17**	-.07
실내비품 및 작품의 진열과 배치	-.08	.13	.10	-.27**
언어·개념학습 활동을 위한 환경	.17**	.05	-.05	-.03
대소근육운동 활동을 위한 환경	.02	.07	.08	-.11
창의적 활동을 위한 환경	.08	.02	.01	-.09
사회성 활동을 위한 환경	.15**	.13	-.01	-.09
교사·부모환경	-.01	.09	.10	-.17**
총 점	.08	.14*	.02	-.16*

* $p < .05$ ** $p < .01$ *** $p < .001$

탁아기관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협력성이 높고, 불안정성이 낮았다. 하위영역별로는 '생활습관 지도를 위한 환경', '언어·개념학습 활동을 위한 환경'과 '사회성 활동을 위한 환경'이 사회적 활동성과 관련있었으며, '실내비품 및 작품의 진열과 배치'와 '교사·부모 환경'이 불안정성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반적인 탁아기관의 질이 높은 기관에 다니는 아동일수록 좀더 긍정적인 행동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신혜원, 1992; 전선옥, 1989; 조선영, 1991; 황현주, 1991; Andersson, 1992; Feild, 1991, 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탁아기관의 질적 요인과 아동의 사회성발달간의 관계에서는 교사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사회적 활동성이 높고(.13, $p < .05$), 아동일인당 활용면적과 실내면적이 넓을수록 협력성이 높았다. 또한 아동일인당 활용면적이 좁을수록 과민성이 높았으며(-.23, $p < .001$), 교사의 교육정도가 낮고 실내면적이 좁을수록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p < .05$; -.14, $p < .05$). 이는 아동일인당 활용면적, 실내면적 등의 공간크기가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나타내며 공간크기가 적을수록 과민성,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공간크기가 넓을 때 협력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일인당 공간면적이 적을수록 또래간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친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이 감소한다는 Rohe & Patterson(197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교사가 교육과 자격을 갖추고 경력이 오래될수록 아동발달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탁아기관의 질과 사회성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탁아기관의 전반적인 질이 높을수록 불안정성이 낮게 나타났다(-.18, $p < .05$), 집단크기가 크고 아동

일인당 활용면적이 좁을수록 과민성이 높았고(.27, $p < .01$; $-.20$, $p < .01$), 아동일인당 활용면적과 실내면적이 넓을수록 협력성이 높게 나타났다(.24, $p < .01$; .22, $p < .05$). 여아의 경우, 전반적인 질이 높을수록 과민성이 낮게 나타났으며($-.27$, $p < .01$),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고(.24, $p < .05$), 집단크기가 크며(.24, $p < .05$), 아동일인당 활용면적이 좁고($-.21$, $p < .05$) 교사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과민성과 불안정성이 높았다($-.22$, $p < .05$; $-.28$, $p < .01$). 한편, 여아는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사회성발달의 제 측면인 협력성과 과민성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는데 남아보다 여아가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추측케 하는 결과이며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을수록 불안을 덜 보이며 협용력이 높아졌다는 선행연구(Belsky, 1984)와 일치한다.

2) 탁아경험과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탁아경험과 사회성발달과의 관계는 <표 2>와 같다.

<표 2> 탁아경험과 아동의 사회성발달간의 상관계수 (N=252)

변인	사회적활동성	협력성	과민성	불안정성
탁아시작시기	.18*	.15*	-.24***	-.15*
탁아경험기간	-.16*	-.13	.25***	.13
탁아이용시간	.09	-.19*	.20**	-.08
탁아안정성	.06	.18*	-.18*	-.14*

* $p < .05$ ** $p < .01$ *** $p < .001$

탁아경험과 사회성발달과의 관련성 분석에서 탁아경험은 사회성발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탁아시작시기가 이르고 경험기간과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탁아안정성이 낮을수록 사회적활동성과 협력성이 낮고, 과민성과 불안

정성이 높았다. 이 결과는 탁아 경험이 보다 많은 아동이 공격적이고 과민하며 성인에게 순응하지 못하고 타인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한 Belsky(1986, 1988)와 Haskins(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성별에 따른 탁아경험과 사회성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탁아경험은 과민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탁아시작 시기가 이르고($-.30$, $p < .001$), 탁아경험기간과 탁아이용시간이 길며(.29, $p < .001$; .22, $p < .05$), 탁아의 안정성이 낮을수록($-.19$, $p < .05$) 과민성이 높았다. 여아는 반대의 경우, 즉 탁아시작시기가 늦고(.26, $p < .01$), 탁아안정성이 높으며(.23, $p < .05$), 탁아경험기간과 탁아이용시간이 짧을수록($-.24$, $p < .05$; $-.30$, $p < .01$) 협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특성과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가족특성과 아동의 사회성발달과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표 3> 가족특성과 아동의 사회성발달간의 상관계수 (N=252)

변인	사회적활동성	협력성	과민성	불안정성
애정적인 양육태도	.20**	.24***	-.05	-.09*
통제적인 양육태도	-.11	-.20**	.15*	.20**
부모역할갈등	-.12	-.09	.03	.03
사회적 지지	.15*	.14	-.09	-.11

* $p < .05$ ** $p < .01$ *** $p < .001$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활동성이 높았으며,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며 덜 통제적일수록 협력성이 높고 불안정성이 낮았다. 이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의 또

래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Crnic et al., 1983; Easterbrooks & Goldberg, 1984; Howes & Stewart, 1987)와 일치한다.

성별에 따른 가족특성과 사회성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남아가 여아보다 가족특성과 더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남아의 경우,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사회적 활동성(.18, $p < .05$)과 협력성(.27, $p < .01$)이 높으며 과민성(-.17, $p < .05$)은 낮았고,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과민성과 불안정성(.19, $p < .05$; .20, $p < .05$)이 높은 반면 협력성은 낮았다(-.17, $p < .05$).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활동성이 높아지고(.17, $p < .05$) 불안정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7, $p < .05$). 여아의 경우,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과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22, $p < .05$). 이것은 남아와는 다른 현상으로 남아의 경우,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과민성이 낮은 반면, 여아의 경우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과민성이 높게 나타났다.

3.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이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탁아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만 4세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변인군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회성발달은 사회성발달의 각 속성들이 얻은 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각 사회성발달 속성에 대한 전체 합이다.

[표 4] 사회성발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아동특성변인군		가족특성변인군		탁아경험변인군		탁아기관의 질변인군	
	<i>b</i>	β	<i>b</i>	β	<i>b</i>	β	<i>b</i>	β
아동의 성(남=1)*	-3.39	-0.12*	-2.84	-0.10	-3.47	-0.13*	-3.38	-0.12*
아동의 연령	0.92	0.25***	0.88	0.23***	0.86	0.23***	0.82	0.22***
애정적인 양육태도			0.62	0.22***	0.65	0.21***	0.69	0.22***
통제적인 양육태도			-0.26	-0.16*	-0.25	-0.14*	-0.32	-0.18*
부모역할갈등			-0.10	-0.09	-0.12	0.04	-0.20	-0.06
사회적 지지			0.17	0.03	0.19	0.08	0.10	0.04
탁아경험기간					-0.23	-0.27***	-0.16	-0.20**
탁아안정성					1.20	0.07	0.59	0.04
탁아기관의 전반적인 질							0.20	0.13*
집단크기							-0.30	-0.20**
아동일인당 활용면적							2.67	0.08
intercept	50.653		39.483		35.691		29.344	
R^2	0.0881***		0.1879***		0.2567***		0.3316***	
R^2 증가량			0.0998		0.0688		0.0749	

* $p < .05$ ** $p < .01$ *** $p < .001$ * nominal-dummy variable

〈표 4〉에 의하면, 아동의 사회성발달은 아동의 성과 월령, 양육태도, 탁아경험기간, 탁아기관의 전반적인 질, 집단크기 등의 독립변인들에 의해 약 33%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들은 아동의 월령과 애정적인 양육태도이었으며($p < .001$), 그 다음으로 탁아경험기간, 집단크기, 통제적인 양육태도($p < .01$), 탁아기관의 전반적인 질과 아동의 성($p < .05$)이 사회성발달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이며, 아동의 월령이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며 덜 통제적일수록, 탁아경험기간이 짧을수록, 집단크기가 작으며, 전반적인 탁아기관의 질이 높을수록 사회성발달 점수가 높았다. 이것은 부모가 애정적이면서 덜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Easterbrooks와 Goldberg(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탁아기관의 전반적인 질과 교사의 적절한 양육행동을 촉진하며 또래의 방해없이 과제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집단크기와 아동일인당 활용면적이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동특성, 가족특성, 탁아경험, 탁아기관의 질 변인군은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아동의 사회성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가족특성변인군으로 다른 독립군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약 10%의 변량을, 아동특성 변인군이 약 9%의 변량을, 탁아기관의 질과 탁아경험 변인군이 각각 약 7%의 변량을 추가로 설명하였고 이러한 변량의 증가는 유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탁아기관의 질보다는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성발달을 잘 예언해 준다고 보고한 Phillips 등(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초기 경험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과 관련된 여러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상호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때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탁아 아동의 사회성발달이 탁아와 가족 특성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및 곧 부모가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양육태도, 효과적인 대화의 방식, 반응적인 부모역할, 친사회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아동의 사회성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녀양육방법 등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의 실시가 요구되며 탁아정책과 관련하여 집단 크기에 대한 규제와 함께 탁아기관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탁아를 받은 아동이 언제, 얼마나, 탁아를 받았는가에 관계없이 발달상에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 관심과 개선이 요구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의 사회성발달과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이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과 아동의 사회성발달과의 관계에서 탁아기관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협력성이 높았고, 불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탁아기관의 질적 요인과 아동의 사회성발달간의 관계에서는 교사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사회적 활동성이 높고, 아동일인당 활용면적과 실내면적이 넓을수록 협력성이 높았다. 또한 아동일인당 활용면적이 좁을수록 과민성이 높았으며, 교사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실내면적이 적을수록 불안정성이 높았다. 탁아경험 특성과 사회성발달과의 관계에서, 탁아시작시기가 늦을수록 경험기간과

이용시간이 적을수록 탁아안정성이 높을수록 사회성발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과 아동의 사회성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부모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활동성이 높았으며,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며 덜 통제적일수록 협력성은 낮고 불안정성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탁아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만 4세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여아이며, 월령이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며 덜 통제적일수록, 탁아경험기간이 짧을수록, 집단크기가 작으며, 전반적인 탁아기관의 질이 높을수록 사회성발달 점수가 높았다. 또한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가족특성, 아동특성,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변인군이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아교육 환경 평정척도와 사회성발달 척도가 국내에서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측정도구의 타당화 문제가 제기되며 평정자간의 탁아기관의 질에 대한 개념의 차이로 주관이 개입되었을 우려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도한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의 영향력이 낮아 탁아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인 가정과 탁아라는 두 장면에서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과 아동의 사회성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이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봄으로써 가족과 아동발달을 위한 긍정적 환경으로서의 탁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한점을 토대로 양적으로 더욱 확장되리라 전망되는 탁아기관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탁아기관의 다양한 질적 특성이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발달에 미치는 탁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양육의 질과 탁아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태학적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각년도). 한국통계연감. 서울: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김향화(1993). 탁아기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송이(1994). 탁아교사의 언어유형에 따른 아동의 놀이실 행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은주(1993).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유아-양육자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원(1992). 보육시설의 질적수준에 따른 아동의 놀이실 행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 영(1990). 탁아와 유아발달. 덕성여대 주최, 탁아와 유아교육.
- 이 영·신은주·나종혜(1994).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1). 아동학회지, 25(2), 37-53.
- 이은화·이상금·이정환·이경우·이기숙(1993).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유아의 가정 환경과 유아의생활형태. 한국어린이육영학 학습보고서, 4, 5-60.
- 임재택(1983). 유아교육 환경 평정 척도의 표준

- 화를 위한 예비연구. 교육논집(부산대학교 사범대학), 10, 107-143.
- 전선옥(1990). 유치원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물리적 환경의 질에 따른 유아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영(1991).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온강·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 32(1), 103-117.
- 황현주(1991). 유아교육기관의 질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dersson, B. (1992). Effects of day-care on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of thirteen-year-old swedish school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20-36.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1988). The effect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35-272
- Burchinal, M., Lee, M., & Ramey, C. (1989). Type of day care and preschool intellectual development in disadvantaged. *Child Development*, 60, 128-137.
- Clarke-Stewart, A. (1984). Day care: A new contex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M. Permutter(Ed.). *Parent-child interac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 Clarke-Stewart, A. (1990). 탁아. 서영숙(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본발간일, 1982).
- Crnic, K. A., Ragozin, A. S., Greenberg, M. T., Robinson, N. H., & Basham, R. B. (1983). Social interaction and developmental competence of preterm and full-term infants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54, 1199-1210.
- Easterbrooks, M. A. & Goldberg, W. A. (1985). Effects of early maternal employment on toddlers, mothers, and fa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21, 774-783.
- Field, T. (1991). Quality of infant day-care and grade school behavior and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2, 863-870.
- Haskins, R. (1985). Public school aggression among children with varying day-care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56, 689-703.
- Hegland, S. M., & Rix, M. K. (1990). Aggression and assertiveness in kindergarten children differing in day care experien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105-116.
- Howes, C. (1988). Relations between early child care and schoo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3-57.
- Howes, C. (1990). Can the age of entry into child care and the quality of child care predict adjustment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92-303.

- Howes, C., & Olenick, M. (1986). Family and Child care influences on toddler's compliance. *Child Development, 57*, 202-216.
- Howes, C., & Rubenstein, J. (1985). Determinants of toddler's experiences in day care: Age of entry and quality of setting. *Child Care Quarterly, 14*, 140-150.
- Howes, C. & Stewart, P. (1987). Child's play with adults, toys, and peer: An examination of family and child-care infl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23-430.
- Phillips, D, Scarr, S., & McCartney, K. (1987). Child-care quality and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37-543.
- Phillips, D., McCartney, K., Scarr, S., & Howes, C. (1987). Selective review of infant day care research: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7*, 18-21.
- Rohe, W., & Patterson, A. H. (1975). The effects of varied levels of resources and density on behavior in a day care center. In D.H. Carson (Ed.), *Man-environment interaction*. New York: Halsted Press.